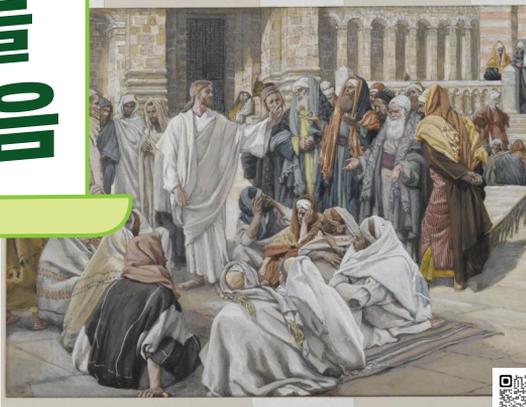




NO.2161

# 하늘 마음



제임스 티소트의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자들〉



## 입당송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제1독서

 신명 6,2-6

## 화답송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웁니다. ◎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불,  
저의 성채시웁니다.  
찬양하을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 제2독서

 히브 23-28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복음

 마르 12,28ㄱ-34

##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 내리는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을 슬픈 것으로, 큰 상실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매료시킬 때도 있습니다. 추리 소설과 공포 영화가 흥행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서도 누군가가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관해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언제 실제로 죽는가에 관한 문제도 그러합니다.

## 1 죽음이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 운명의 수수께끼는 절정에 이른다.”(〈사목 헌장〉 18항) 또한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죄가 주는 품삯”(로마 6,23)이기도 합니다. 원죄로 죽음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2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고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고대합니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필리 1,21) 그는 실제로 죽음을 갈망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필리 1,23) 하지만 언제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필리 1,24-25)

## 3 사람은 언제 죽나요?

죽음의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죽어 가는 사람이 장기 기증자일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장기를 너무 빨리 떼어 내 그 사람이 죽으면 살인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체하면 장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장기 기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이라는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2000년 8월 29일). 하지만 과학적 수단으로 그 순간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교황은 과학자들이 죽는 순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생물학적 표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하느님과 트윗을》(2016년,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날은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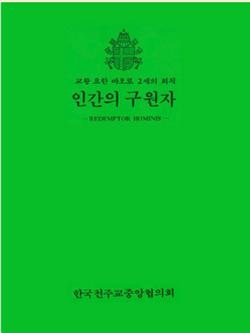
# 인간의 구원자

## Redemptor Hominis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C.Y.A 친구들 그간 잘 지냈나요? 어느덧 우리는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였고, 한 해는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네요. 위령 성월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이 서로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기간이니 만큼 우리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해요.



출처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문헌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회칙 **‘인간의 구원자’**라는 문헌이에요. 이 회칙은 교황님께서 교황직을 시작하신 후 첫 번째로 반포하신 회칙이에요. 그만큼 오래된 회칙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큰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헌을 소개해볼까 해요.

교황님은 교회의 필요와 세상의 요청에 따라 공의회를 소집하실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열렸던 공의회는 1962년부터 3년 간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C.Y.A 친구들도 한 번쯤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들어봤을 거예요. 공의회 내용을 전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당시 공의회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교회 내의 것만을 지키려고 했던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쇠신을 이룩한 아주 기념비적인 공의회로 평가를 받았답니다. 이런 변화와 쇠신 덕분에 우리는 모두 특히 교회 내의 활동에 더욱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황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첫 번째로 반포하신 문헌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교황님께서서는 앞서 언급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듭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이 공의회의 **‘위대한 유산’**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이지요.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세상을 향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12-14항)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마음이 향할 유일한 방향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7항).**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 계명대로 사람들이 따라 살 것을 원하셨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행동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해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에 회칙은 이를 하느님의 첫 번째 '창조'와는 다른,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출처 : 가톨릭 신문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개발 논리를 따라, 환경을 황폐화하고 윤리적으로 무질서한 삶을 살기도 하지요.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지만,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한 나라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어요.(13-16항) 결국 인간은 스스로 이 모든 난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너무나 크게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면 우리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절로



요한 바오로 2세  
출처 : 가톨릭 신문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친구들의 동반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도 타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C.Y.A 친구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을 하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담도록 합시다.

# 복음자리

2024년 11월 3일 | 연중 제31주일  
(마르 12,28ㄱ-34)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르 12, 30-31)

## 새겨보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학자의 질문에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계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고 있으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형식적 의무를 떠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